

90년대 문화담론의 '발신기지', 영화

역사·철학·정신분석학 등 인문학적 성찰로 영상문법 정리한 책들 선보여

영화는 90년대 문화담론의 '발신기지'다. 문자제국에서 영상제국으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월되는 시기와 맞물리는 문화담론의 세포분열적 증식과정은 영상문법의 정교화·체계화와 예술적 성취에 힘입은 바 크다. 한때 서양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은밀한 유통채널로서, 상업주의의 오염으로 인한 탈정치적 담론공간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영화에 대한 관점이 수동적·소극적 방어기제에서 벗어나 이제 인문학적 성찰의 가시권 안에 포섭되고 있다.

영화와 인문학과의 만남

영상에 스민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형이상학적 언어로 풀이한 영화철학자들이 영화서적의 변경지대를 개척하고 있다. 올해 초에 나온 《들뢰즈와 철학》(문화과학사)과 《나는 본다, 철학을》(동녘)이 그 대표적인 사례(본지 235호 〈영화와 철학, 어떻게 만날까〉 참조). '영화를 통한 철학하기'의 모험을 보여주는 이 책들은 철학의 난해성을 영상이라는 구체성의 공간 속에서 접합시키려는 인문학적 경계 허물기를 보여준다.

영화는 대중의 소비영역을 통해 검증받지만 그 창조자들의 상상력과 세계관을 담고 있게 마련이다. 영화인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예술가의 반열에 오른 영화감독들의 평전과 영화세계에 대한 조명도 꾸준히 이어졌다. 영화를 통해 개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해온 스웨덴 출신 영화감독 잉그마르 베리만의 창작과정을 정리한 《잉그마르 베리만의 창작노트》(시공사), 《우계즈 이야기》·〈적선시대〉 등의 작품으로 일본 영화 특유의 섬세함의 미학을 구현했던 미오구찌 겐지의 작가론인 《미오구찌 겐지의 영화세계》(현대미학사) 등이 예술가의 삶과 고뇌를 풀어냈다.

그 외에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 한국의 페미니즘 영화를 분석한 《메두사의 웃음: 한국 페미니즘 영화와 섹슈얼리티》(커뮤니케이션북스), 세익스피어·셰르반데스·브레히트 등 문학가들의 자기반영적 전통이 영화장르 속에서 반영되는 양상을 추적한 《자기반영의 영화와 문학》(한나래) 등도 영화와 인문학과의 전략적 제휴

경제한파 속에서
영화서 출판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화를 통한
역사읽기가 활발해지고
있다. 영화관객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들
영화도서의 문자적
세례가 기여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할리우드 영화의 전형으로 꼽히는 〈쥐라기 공원〉 포스터와 청년노동자의 삶을 그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한 장면.

를 입증한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한파 속에서 영화서의 출간이 올해 초에 비해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영화책들은 영화를 통한 역사읽기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문 역사학자들이 영화를 사료로 삼아 엄밀한 '영상고증'을 펼치고 있는 《영화로 본 새로운 역사》(소나무)는 사실(史實)을 소재로 한 영상과 영상 속의 역사 사이에 놓인 갭이 아직도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이클 그랜트, 로버트 단튼, 피터 게이 등 쟁쟁한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 '옥에 티'들을 가려낸다.

예를 들어 〈쥐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쥐라기가 아닌 백악기의 공룡이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861년 봄 흑인노예들이 목화를 따는 서정적 장면으로 막이 오르지만 그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봄에 목화를 수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낸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사소한 오류를 지적하는 데 멈추지 않는다. 역사영화는 흥행이라는 제삿밥에 열을 올려 창작역사적 진실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분석해낸다.

《영화로 본 새로운 역사》가 역사학자의 섬세한 '체'에 걸린 영화 속의 허구를 전문적 식견으로 캐냈다면, 《영화로 읽는 세기말의 역사》(바다출판사)는 영화 속에 그려진

20세기의 비극과 희망, 학살과 울부짖음을 증언한다. 북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비극적 분쟁을 다룬 〈아버지의 이름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남긴 상처를 쓰다듬는 〈푸른연〉, 노동자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역사의 제단에 몸을 바친 청년 노동자의 삶을 그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등을 통해 영화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의 비극과 희망을 새롭게 읽어낸다.

한국영화에 대한 쓴소리

할리우드 영화라는 '골리앗'과 힘겹게 싸우는 한국영화는 우리 영화인들에게 애증의 대상이다. 《영화 속으로 떠나는 문화여행》(미래사)은 영화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영화작가의 한국영화에 대한 쓴소리를 담고 있다. 우리 영화를 질곡으로 내몬 한국 현대사를 되짚는 한편, 삶의 진실성을 그리는 영화의 본령으로 회귀함으로써 한국 영화를 살려내자고 제언한다.

영화에 대한 자료적,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한 책들도 나와 있다. 《궁핍한 시대의 희망, 영화》(열화당)는 1950년대 〈희망〉·〈여원〉·〈신태양〉 등 대중잡지에 실렸던 흑백영화광고 4백여편을 모은 영상자료집이다. 궁핍한 시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을 낭만적으로 보여주는 이 책은 당대의 사회정서와 문화생활을 엿보게 한다.

차림출판사는 '보는 영화'에서 벗어나 '읽는 영화'를 표방하며 〈차림영화총서〉를 펴

내기 시작했다. 특정 영화장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총서는 현재 1910년 에로물에서 90년대 퀴어 영화까지 아우르는 《섹스 영화》와 〈닥터 노〉에서 〈네버 다이〉까지 007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보를 담은 《첩보 영화 007》을 선보였다. 올해 안으로 《필름 느와르》, 《M-TV》, 《퀵트 영화》 등 10여종이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정기 간행물로는 영화담론의 이론적 참조로서 계간지 《필름 걸쳐》(한나래)가 창간되었다. 《씨네 21》·〈로드 쇼〉·〈스크린〉·〈키노〉·〈프리미어〉 등 영화전문 잡지들과는 달리 영화비평 전문잡지로서 출발했다. 창간사에서 기존의 영화관련 매체들이 홍보적 차원에 함몰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영화의 역사성을 재인식하는 건전한 비평공간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창간호에서는 〈미국 영화, 그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필름 느와르〉, 〈아이젠하워 시대의 영화〉, 〈고다르와 할리우드〉 등의 논문을 수록했다.

우리는 영화가 보내는 신호에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담을 수도 있고, 지리멸렬한 일상에 대한 기만적 위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를 가치 있는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권리와 의무는 전적으로 눈밝은 관객에게 달려 있다. 영화관객의 수준을 높이는 데 영화도서들의 문자적 세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은 명백하다. — 박천홍 기자